



[라이프] 여름 별미 찾아 백화점·마트로... 시장가 '문전성시' 나



Life

[중소] 헬스앤메디슨 건강한 견생·묘생 동물병원이 돕는다 L2



# 8만쌍이 선택한 허니문전문 ‘팜투어’ “한번뿐인 ‘허니문’ 완벽하게 책임질 것”

## 메트로 트래블

경쟁력은 전국 지사 보유한 규모 매주 주말마다 허니문박람회 개최

최근 동유럽 다뉴브강 사건으로 여행 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메트로트래블은 지난4일 안전 및 양질을 추구하는 허니문 1위 팜투어 권일호 사장을 만나 그의 여행업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권사장은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사고는 남 일 같지 않고, 여행업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라며 먼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도 최근 선박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허니문스팟인 스위스 취리히도 유람선 관광이 있다”며 “유람선뿐 아니라 가장 위험이 큰 계비행기, 그다음에 배, 물놀이, 스킨스쿠버 등 허니문은 물놀이가 기본이어서 허니문 업계에서도 위험에 각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허니문 리더로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와이에 스노클링 스팟이 몇 군데 있는데, 어느 한국 허니문녀가 겁 없이 덤벼들었다가 외국인이 긴급히 도와준 일이 좋은 케이스도 있었다”며 “신랑·신부도 수영잘한다고 말하면 큰일 난다. 발리 씨워커(어항을 쓰고 물에 잠수하는 것) 같은 경우, 물 속의 강한 회오리를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안전에 관한 생각을 말했다.

권사장은 “팜투어는 여행 배상보증이 개별 5억원으로 준비되어 있다”며 “정부가 그러듯이 현지 파트너에게 경각심주고 회의하고,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현지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소통 부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최근 다낭에서도 스킨스쿠버 사고가 있었다”며 “허니문녀는 스킨스쿠버, 심장마비 등 각별히 조심해야



허니문여행업계 선두주자인 권일호 팜투어 사장이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민희기자



팜투어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허니문여행 설명회에서 고객들이 팜투어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팜투어

한다”고 덧붙였다.

권사장은 몇년전 허니문여행사들의 부도 및 횡령사건에 대해선 “인센티브 여행을 취급하는 작은 허니문 여행사는 이제 답이 없다”며 “작은 허니문 여행사들의 덤핑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사건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팜투어는 허니문 설명회를 매주 강남 본사에서 진행중이다. 허니문 출발은 4, 5, 10, 11월이 가장 많고, 벌써 올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도 6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일호 사장은 “팜투어는 2003년 처음 600쌍으로 시작해 2018년 2만 쌍, 최근 5년 동안 8만쌍이 여행을 했으며 광주·부산이 1등로, 팜투어 때문에 없어진 허니문 전문여행사가 많다”며 팜투어가 가진 업계 월등한 경

쟁력을 밝혔다.

강남에 위치한 본사 허니문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맺은 예비 신혼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신혼여행상담 후 계약을 맺게 된 결정적인 원인 및 사유에 대해 ‘본사를 비롯해 전국 지사를 보유한 규모와 직원 수(52쌍)’를 꼽았다.

실제 팜투어는 본사 규모만 400평에 달하고 직원 수는 100여명에 달한다. 팜투어 전국지사로는 본사를 비롯해 직영지점인 강북 종로, 경기도 일산, 부산 및 대전과 부평, 구월, 계양, 수원, 안산, 천안, 청주, 원주, 전주, 광주, 순천, 대구, 울산까지(하와이 직영 지사 포함) 총 19개를 보유하고 있다.

팜투어 권일호 대표이사는 “팜투어의 허니문박람회 현장을 방문하면 1:1 맞춤 상담을 통해 편안함 과 신뢰를, 또 박람회 완전특가 및 단독 프로모션으로 알뜰하고 경제적인 신혼여행길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창립 17년의 오랜 경험과 오직 허니문만을 위해 정진해온 팜투어는 국내 유일의 신혼여행 상담 창구인 팜투어 허니문박람회를 매주 주말마다 개최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생애 단 한번뿐인 허니문을 완벽하게 책임진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 영국관광청 하나투어 여행박람회서 ‘여행토크’ 워크숍 개최

하나투어 대리점장 초청해 영국 홍보

영국관광청은 7~9일 열린 하나투어 여행 박람회에서 영국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하나투어 대리점장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투어는 국내 20여 계열사와 전 세계 30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여행 종합 그룹이다. 한국 전역에 8000여 여행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하나투어는 올해로 13번째 ‘하나투어 여행박람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영국관광청은 7일 킨텍스 하나투어



영국관광청 중국 및 동북아 지역 담당 이사 마뉴엘 알바레스. /영국관광청

여행 박람회에서 ‘여행 토크 (Travel Talk)’ 워크숍에 50명의 하나 투어 대리점장 들을 초청해 영국의 4 개 지역

을 홍보하고, 영국항공과 하나투어 제품 개발 팀은 영국을 모노 여행 목적지로 강조하는 영국 FIT·패키지 제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날 진행했다.

영국관광청 중국 및 동북아 지역 담당 이사 마뉴엘 알바레스는 “우리는 한국이 방문객으로 하여금 영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고무시키고 싶다”며 “하나투어를 포함한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영국을 방문해 런던을 여행하고 방문자가 런던을 넘어서 영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열망하고 있습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민희 기자

## 아울렛시티메칭엔

# 유명 브랜드 한곳에... 유럽 쇼핑의 ‘성지’

10월 세계 최대규모 ‘휴고 보스’ 오픈

유럽 넘버원 아울렛으로 선정된 독일 남부 ‘아울렛시티메칭엔(Outlet City Metzgingen, Holy AG)’의 유니우 아시아지역 마케팅 매니저가 지난 3일 아울렛시티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유니우 매니저는 “이 곳의 훌륭한 명품들은 연중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쇼핑과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도 있다. 마르세 뵈베크, 아모리노 등 다양한 레스토랑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메칭엔은 무료 와이파이, 무슬림 기도실, 어린이 케어 센터와 같은 특별 서비스와 여행 파트너 및 헬스케어 서비스 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국제 고객을 유치 중이다.

그는 “매력적인 도시인 메칭엔은 독일 서남부에 위치해 있어 프랑크푸르트, 뮌헨, 취리히에서 약 2시간, 슈투트



유니우 아울렛시티 메칭엔 매니저. /이민희 기자

가르트에서 30분이면 올 수 있는 곳”이라며 “2019년 10월 즈음에 세계 최대 규모의 휴고 보스(Hugo Boss) 아울렛 매장이 개장되면 이 도시 역사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성공적 자리매김을 확신했다.

또 “한국의 경우, 블로그에서 이벤트 및 패션 관련 포스팅을 통해 한국 고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 하고 있고, 하반기 하나투어 여행사와 관련상품화를 논의중”이라고 귀띔했다. /이민희 기자

## 트럼프 호텔 와이키키

# ‘3박 무료’ 인플루언서 원정대 이벤트

하와이 여행에 관심있는 국내 인플루언서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트럼프 호텔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와이키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하와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와이키키’ 3박 무료 숙박 기회가 온 것이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와이키키는 럭셔리 레지던스 콘셉트의 호텔로 와이키키 비치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쇼핑센터 등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일반 객실부터 스위트 객실까지 모두 키친이 완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허니문녀들과 가족여행객들에게 베스트 호텔로 꼽힌다.

6월 30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당첨자에게 트럼프 인터내셔



하와이 트럼프호텔. /에스마케팅

널 호텔 와이키키에서의 디럭스 오션뷰 객실 3박 무료 숙박(약 1500달러 상당)과 조식이 제공된다.

참가방법은 하와이 트럼프 호텔에 대한 기대평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고 트럼프 호텔 한국사무소 블로그 이벤트 포스팅 댓글에 URL을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이민희 기자

## 캐세이퍼시픽항공

#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무브 비욘드’ 선포

캐세이퍼시픽항공이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무브 비욘드(Move Beyond)’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법인명도 ‘캐세이퍼시픽항공’으로 변경한다.

캐세이퍼시픽은 ‘무브 비욘드’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다양한 장소,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고객들의 여정을 한 걸음 더 멀리 인도하겠다는 자사의 신념이 이번 브랜드 캠페인의 핵심이다.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사 브랜드 가치도 재정립했다. 역동적인 아시아의 허브 도시인 홍콩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현대적이고 진보적태도로

다가가겠다는 ‘진취성’, 많은 시간을 투자해 모든 승객들을 존중하고 보살피겠다는 ‘세심함’, 긍정과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할 수 있다는 정신’이 바로 브랜드 가치의 핵심이다.

이번 브랜드 캠페인 슬로건 ‘무브 비욘드’를 반영한 로고 타입은 슬로건 문구를 오른쪽으로 들어 씬으로써 지속적으로 나아가려는 캐세이퍼시픽의 진취적인 정신을 나타낸다. 또한 캐세이퍼시픽 기업 로고인 브러시윌에 비행기구름(The Vapour Trail) 그래픽을 적용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시 브랜드의 역동성과 진보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